

## 미국의 YouFra 근황

캐터린 모랄로 OFS  
국가형제회 청소년 분과위원장

미국전역에 있는 지구, 형제회, 회원들은 “회원상호간의 친교를 촉진,” 특히 청년들과의 친교를 촉진해야 한다는 회칙 24 조를 엄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젊은이들이 복음생활을 탐구하고 포용하게 할려면 우선 우리가 표양을 보여야한다. 우리가 신앙에 충실하고, 헌신적인 봉사의 삶을 살고, 기쁘고 희망적인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우리의 소명을 솔선수범 한다면 그들의 마음에 불을 당길수 있고 우리의 모범을 따르게 할수 있을것이다. 젊은이들을 거룩함의 여정으로 이끌려면 그들을 격려해 주고, 좋은 생각을 심어 주고 도와 주어야 한다.

### 회원 개인으로서 할수있는 일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에게 닥아 가려고 노력한다. 예컨대 “항가리의 성엘리자벳 지구”의 헤더 셔니악같은 사람은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관계성이라고 생각했기에 “콜베 지구형제회” 회장일 이외 맡고 있는 일이 많아 바쁜데도 불구하고 프란치스칸 프로그램인 “성령”이란 행사를 기획하여 *프란시스:인간, 기사, 성인*이란 연극을 공연했고, 종종 젊은이들의 저녁모임에 피자를 사다 주기도 하였다. OLA 지구의 켈리는 정평환 운동에 몰두하고 있는 젊은이인데 다른 젊은이들을 대상으로한 “와서 보시오”행사를 기획하여 주관했으며, 파나마에서 있었던 세계 청소년 대회에 참가했던 경험에 대해 아주 감명깊은 글도 썼다.

### 형제회 주관 행사

젊은이들에게 닥아가는 행사는 몇몇 형제회가 함께 할 수도 있다. 사실은 이 방법이 효과적이고 더 좋은 방법이다. 예컨대 몬타나에 있는 형제회들은 북가주에서 온 55 명의 젊은이들과 성인 인솔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였다. “활동하는 젊은이웃들”이라는 젊은 가톨릭신자들의 일주간의 몰입선교 체험여정의 마지막 날이었다. 형제회들은 그들을 재워줬을 뿐만 아니라 맛있는 저녁식사도 제공했다. 또한, 최근 사는 마을 전체가 산불로 폐허가 되버린 캘리포니아에 있는 주니페로세라 지구의 패라다이스 형제회에서는 교회주변의 프란치스칸 정원에 나무를 다시 심고 정원을 꾸미는 일을 젊은이들과 함께 하였다. 어떤 형제회들은 연극이나 전이기념식(Transitus), 영명축일행사등을 젊은이들과 같이했고 어떤 때는 젊은이들이 이 일들은 직접 기획하기도 했다.

### 형제회내의 청소년 사도직

어떤 형제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청소년봉사를 한다. 예컨대 “프란치스코의 형제자매들”지구에 있는 형제회들은 조지아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캠퍼스내에 음식을 두는 코너를 운영한다. 이 지구에 있는 다른 형제회에서는 본당 청소년 단체에 피자를 갖다 주고 그들에게 프란치스코를 소개하기도 한다. 캘리포니아주 프레스노시에 있는 성요한 형제회에서는 한달에 한번 뉴만센터 학생들을 돕기 위하여 식사를 마련하고 있다. 회원들은 식당 일만하지 모임에 참석하진 않지만 모임이 끝나면 젊은이들은 어른들이 음식을 치우는 것이나 설거지 하는 것을 도와준다. 접시를 닦으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젊은이들과 어른들은 얘기를 하게되고 서로의 삶에

대한 생각을 나누게 된다. 이런 형제회들은 직접적으로 젊은이들의 멘토가 되지는 않지만, 함께 하는 시간은 관계성을 형성하는 기회가 되며, 딱딱하지 않은 분위기에서 신앙을 나눌 수 있고 진정한 봉사하는 일꾼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 **YouFra 에 대한 지구의 도움**

YouFra 는 지구의 도움을 받아 설립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젊은이들에게 프란치스칸 영성을 전해 주는 일을 하다 보면 “나 혼자만 안된다”는 말이 새삼스럽다. 지금도 어떤 지구는 막 YouFra 를 설립했거나 설립 중에 있을 것이다. 가장 최근에 설립신청을 한곳은 아리조나에서 인데 작은형제회의 스콧 슬라팀 수사는 저녁시간을 내어 청년들과 신앙체험을 나누고, 공동체 만드는 일과 봉사자를 기르는일을 하고 있다. 그와 일년 넘게 함께했던 청년들이 이제 YouFra 를 설립하려고 한다. 그들은 모두 스므살 안팎의 아리조나 대학 대학원생들인데 좀 더 깊은 신앙체험을 원하고 프란치스칸 공동체를 형성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다. 또한, 자니스의 형제회내 청소년분과에는 열한명의 젊은이들이 있는데 그들도 곧 YouFra 그룹을 설립하려고 한다. 그 외에 자니스와 동료들은 청소년 보다 더 어린 애들을 위해서도 뭔가 하고싶어 한다. 그중 하나는 초등학교 또래 애들을 위한 프란치스칸 여름캠프를 조직하는 것이다. 이런 일들을 다른 형제회에서도 해 보면 좋지 않을까?

### **중단하지 맙시다!**

우리는 우선 회칙, 회헌을 잘 알도록 끊임없이 공부해야 하며 지구나 각형제회들은 양성이나 피정스케줄이 나오면 관심을 갖고 대비했다가 참여 하도록 해야한다. “모두 하나가 되어 젊은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우리에게로 오게하자.” “가다 중지 곧 하면 아니 감만 못하다”는 말처럼, 한번 세운 뜻은 포기하지 말고 “신념을 갖고 나아가자.” 하느님과 함께라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 다음 그림은 젊은 미국 (가톨릭)신자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를 너무나 잘 보여 준다.